

# “신당 제대로 안되면 탈당 불사”

### 우리당 의원 13명 ‘당 발전적 해체’ 요구 예정 천정배 “6월10일까지 신당 준비위 만들어야”

문학적 정봉주 양승조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발전적 해체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당의 해체없이 대통합 신당 추진이 어렵다. 당의 발전적 해체를 포함해 조속하게 대통합 신당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신당추진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리, 향후 탈당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지도부에 통합신당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한 만큼 청와대와 우리당간 정무직

인사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당출신 장관들의 당적정리, 이해찬 전 총리의 대통령 정부 특보직 사퇴 등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2·14 전당대회 이후 한달이 지났는데 통합신당작업이 지지부진하다”며 “당 해체선언을 포함,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고, 안되면 지도부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3일 통합추진위원회의에서 ‘결과물없이 이렇게 계속 가면 당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다. 지도부가 바짝 통합신당작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은 이

날 범여권의 통합신당 추진작업과 관련, “87년 6월항쟁 20주년이 되는 6월10일까지 신당창당 준비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통합신당 추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 “그후 한달쯤 뒤인 7월 중순까지는 신당 창당을 마치고 두달 뒤인 9월 중순까지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해 대선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대통합신당 추진작업에 대해 “우리당의 틀을 갖고 신당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당 내에 신당을 반대하면서 당을 사수하겠다는 분들이 버티고 있어 당해체는 어렵다. 결국 당내에서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분들이 빨리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4·3 전당대회와 관련, “(통합이 아니라) 독자생존 쪽으로 정리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신당을 하겠다는 분들은 나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주총장에 가 보자



장필수  
경제부 차장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1년에 한번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상장기업들의 90% 가량이 12월 결산법인이고 이들 법인들의 경우 3월말까지 정기 주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맘때면 곳곳에서 주총이 열린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25개 상장사중 12월 결산법인 23개사가 일정을 잡고 지난달 말부터 개별 기업별로 주총을 열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총장 방문을 꺼려 주총일을 금요일로 집중시키고 있다. 혹시라도 터져나올 지 모를 주주들의 불만을 피해 보자는 속셈이다.

지역 기업들의 주총일도 대부분 금요일인 16일과 23일에 집중돼 있다. 올해 주총은 대체로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 실시와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총장에 가보면 가끔 재미있는 광경도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단골손님(?)의 등장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주총때마다 찾아오는 이들이 골치거리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서울로 주총 장소를 옮긴 금호산업의 경우 회사 관계자들이 광주의 단골손님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며 즐거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지난 9일 열린 광주신세계 주총장에도 해마다 찾는 단골손님이 어김없이 나타났다. 회사측이 50대 남자인 이 사람의 자사 주식 소유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22주를 가지고 있었다. 시가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지만 이 남자는 서울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광주까지 내려와 자신의 눈으로 투자회사의 경영력을 확인하기 위해 꼬치꼬치 캐 물었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현대자동차 주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울쑵 고교를 중퇴한 17세 소년이 나타나 의사발언을 통해 현대차의 노조문제와 일본 도요타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비책을 날카롭게 지적해 화제가 됐다.

싫든 좋든 자산증식 수단으로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수 밖에 없다. 현재도 광주·전남지역 주식투자자수는 18만5천명에 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총장을 찾지 않는다. 단기투자자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거래에 몰두하고 장기투자자도 주총에는 관심이 없다.

이제는 단골손님이 되어보면 어떨까. 주총장에 단골손님이 늘어날 수록 기업들의 주주 우선정책은 더 확대될 것이다.

/ bungy@kwangju.co.kr



화염뿔은 K-1 전차 위용 14일 경기도 파주 후 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전진부대 전차대대 전술훈련에서 K-1 전차가 연습표적을 향해 주포를 쏘고 있다. GOP 시단중 최초로 K-1 전차를 장비한 육군 전진부대는 지난 12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실전에 대비한 전술훈련을 실시 중이다. /연합뉴스

### 대선 주자들 한미 FTA 미묘한 입장차

## “실효성 의문...국익 지켜내야” 야 “시기 엇매이지 말고 신중하게”

대선주자들은 14일 마무리단계에 진입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국익에 충실한 협상이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한미FTA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기에 있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인 데 비해 열린우리당 주자들은 한미FTA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협상시한을 연장해서라도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각론에 있어서는 양당간에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지면 한미관계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농업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엇매이지 않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한미FTA는 개방경제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농업 등 몇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개방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측근이 밝혔다.

순하규 전 경기지사 역시 “한미FTA에는 찬성하지만 협상시한에 맞추기 위해 중요한 이익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원 공보특보가 전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협상내용을 중간계산하면 ‘미이너스 FTA’였다”며 “시간에 쫓겨 많은 것을 잃는 것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경론을 폈다.

김근태 전 의장도 오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FTA 협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며 이때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미 의회 한미 FTA 청문회

#### 20일 협상 진행상황 점검·평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오는 20일 한미 FTA협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가 한미 FTA와 관련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원 세출위 무역소위 샌더 M.레빈 위원장은 13일 한미간에 진행중인 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0일 오후 개최한다고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FTA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문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레빈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관련 업계 기관 및 대표들도 서면으로 한미 FTA협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청문회에선 한미 양국간에 첨예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개방, 쌀·쇠고기 등 미국 농산물 한국시장 접근 확대, 의약품 특허 및 최저가 보장문제, 서비스, 지적재산권투자 등이 초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진보진영 정치세력화 가속

### 미래구상·통합번영국민운동 등 연대방안 논의

보수성향의 뉴라이트 진영에 대항하는 진보진영 시민사회세력의 결집 움직임이 속도가 붙고 있다. 연말 대선을 겨냥해 정치세력화를 통한 독자후보 배출을 목표로 하는 진보진영의 모임이 속속 등장한데 이어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물밑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시민운동가 중심의 미래구상과 재야성향의 통합번영국민운동, 일부 진보성향 교수들의 모임인 원탁회의 준비모임 등 3개 모임은 지난 12일 첫 실무접촉을 갖고 범진보진영의 결집을 위한 연대방안을 논의했다.

통합번영국민운동 최윤 실무기획단장은 14일 “이날 회의에서 3개 모임이 준비팀을 꾸렸다”며 “이달말께 시민사회세력의 통합과 향후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치 ‘연석회의’가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에는 3개 모임 외에 70~8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이 주축이 된 ‘소통과 전망’, ‘긴조집시연대’ 등이 참여하고, 불교·농민단체, 지역운동가 세력들도 가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여권내 ‘제3의 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과의 연대작업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들 진보진영의 움직임과 별개로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일부 386단체가 연합한 전진코리아는 15일 오후 대 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중도개혁’ 진영의 신당창당을 목표로 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재보청기 무인재발 개청소  
새가능 청각보청기

Upgrade 세기보청기

다재보청기 · 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